

2024. 6. 7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

급수부장	백광인	02-3146-1401
급수설비과장	송종학	02-3146-1470
누리집	https://arisu.seoul.go.kr/	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서울시, 도심 속 오아시스 아트음수대 '아리수림' 서울숲에 조성

- 서울숲 도시락정원에 물방울과 숲을 형상화한 공공예술 음수대 설치·개장
-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, 차양·의자·쿨링포그 등 다양한 기능
- 6.5일 아트음수대 개장행사, 증강현실(AR)게임·아리수 와우(WOW)카 등 진행
- 현장에 큐알코드 스캔하면 상시로 즐길 수 있는 증강현실(AR) 필터 콘텐츠 운영

- 서울시는 서울숲에 공공미술을 접목한 아트음수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. 이번에 설치된 음수대는 물방울과 숲을 형상화해 탄생한 '아리수림(阿利水林)'으로,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시원한 아리수를 마시면서 그늘 밑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.
- '아리수림'은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다양한 키에 맞춰 제작됐으며, 휠체어를 탄 시민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. 여름에는 음수대에서 쿨링포그가 나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다.
 - '아리수림'은 지난해 10월 디자인 지명 공모를 통해 'SOAP 디자인스튜디오'가 선정됐다.

디오' 대표 권순엽 건축가가 디자인했으며, 최대높이 2.7 m의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 5개로 구성됐다.

- 서울아리수본부는 지난 5일 서울숲에서 아트음수대의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. 이날 행사는 1부 개장식과 시민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아리수와 환경 보호에 관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아트음수대를 찾아가는 AR게임 '도심 속 오아시스를 찾아라!'가 진행됐고, '아리수 와우(WOW)카'를 통해 아리수와 아리수로 만든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. 행사에는 서울아리수본부 직원들과 사전에 신청한 시민, 당일 서울숲을 방문한 시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.

- 시는 시민들이 아트음수대 '아리수림'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에 설치된 배너의 큐알코드를 스캔하면, 음수대를 배경으로 그림이 나타나는 증강현실(AR) 콘텐츠 '물의 요정이 사는 마을 아리수림으로!'를 상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.
 - 이번 증강현실 콘텐츠에 활용한 그림은 지난 5월 3일 수도박물관에서 진행한 '나만의 물 캐릭터'와 '자연과 어우러진 아트음수대'를 상상해 그림을 그리는 행사에 참가했던 어린이 24명의 작품이다.

-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“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아리수를 마시면서 공공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단순한 음수대 이상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했다.”라면서 “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를 시민들이 거리낌 없이 식수로 마실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□ 작품 개요

- 작 품 명 : 아리수림(阿利水林)
- 작품설명 : 물방울, 숲의 유연한 형태와 음수, 차양, 휴게 기능의 결합을 통해 서울숲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
- 작 가 명 : 권순엽 건축가(‘SOAP 디자인스튜디오’ 대표)
- 제작기간 : '23.10.10. ~ '24.4.30.
- 작품규모 : 높이 2.7 m, 폭 8 m
- 작품구성 : 음수대 3대, 클링포그 2대, 의자 및 탁자

□ 추진 경과

- 디자인 개발 관련 자문회의 개최 '23.7.
- 용역 발주 및 계약 '23.8.~9.
- 작품 디자인 지명 공모(3인) 및 작품 선정 '23.10.~11.
- 작품 실시 설계 및 서울숲 음수대 설치 협의 '24.1.
-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승인 '24.4.

□ 설치 위치(서울숲 공원 내 도시락정원)



□ 조감도 및 아트음수대 사진

